

진안군, 코로나19 집중 방역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위해 민·관·군 협력해 전 세대 대상 실시

진안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민·관·군이 공조하여 관내 11개 읍·면, 316개 마을, 1만2,932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방역 주간인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어 사·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군부대(773부대 1대대)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자와 군부대 인력을 2인 1조로 신속하게 편성했다.

자원봉사자 등 506명이 참여하며, 오

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마을 방역을 실시한다.

봉사자들은 소독에 앞서 안전을 위해 약품과 장비 사용법, 방역 수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소독은 첫날인 9일 진안읍 노계 1동을 시작으로 30개 마을 방역활동을 진행했으며 15일까지 11개 읍·면 전체에 집중방역 작업을 할 계획이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서 방역작업을 결정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진안군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며, 군민들도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NH진안군지부(지부장 김성훈)에서 방제복 420벌을, 진안가정연합(박진옥 목사)과 산수원산악회(회장 김중근)에서 분무기 40점을, 진안군 산림조합(조합장 전해석)에서 방역소독약품(2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군민 건강을 위해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생활민원 중심 제도개선 사례·사회적 배려 대상자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등 분야 추진

무주군이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2018년 이후 시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한다고 밝혔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개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 효율적인 우수사례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발굴(~3.20.) 분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중심의 제도개선 사례, △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인, 외국인주민, 어르신 등)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

스, △민원인 이용편의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 사례 등이 다.

무주군은 합리적인 민원처리기준 관행을 개선한 사례,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한 사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환경 조성사례,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차단하거나 특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등을 주로 발굴할 방침으로, 창의성과 실용성, 효용성, 민간협업·협력, 확산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최우수(1)’와 ‘우수

(2)’, ‘장려(3)’ 등 6건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팀 백선미 팀장은 “상위 3건은 2020년 전라북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이 해당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려 앞서가는 무주군 민원행정을 일구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관내 종교시설 코로나19 수시 방역 실시

무주군이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무주읍을 비롯한 관내 6개 읍면에 소재해 있는 종교시설은 82곳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4일에 이어 오는 11일에는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며 시설 자체적으로도 매일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독에 대한 안내를 공문과 유선, 문자,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하고 공무원들을 마을별 종교시설 담당으로 지정해 예배중단 권고와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은 지난달 배부를 완료했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김정미 팀장은 “신천지에 이어 전국 여러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고



무주군은 무주읍을 비롯한 관내 6개 읍면에 소재해 있는 종교시설 82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시 방역을 실시한다.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종교 시설의 협조를 얻어 수시 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여

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등의 활동 자제를 권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구 감소하는 지방 살릴 것”

임정엽 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역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 선택해 달라”

임정엽(완무진장)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 30여명이 참여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무주와 완주·진안·장수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인물과 능력, 정책을 보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여야 한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임정엽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좌우 진영논리로 국민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정당에 기대어 출세나 정치생명이나 연장하려는 정치인이 아닌 비록 혼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철학과 가치관, 능력과 정책으로 심판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 예비후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 읍면동 기준 183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면서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치를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임 예비후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 읍면동 기준 183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면서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사랑의 마스크 기부운동 전개

13일까지 청사 출입구 정문·후문에 마스크 기부함 1개소씩 비치

진안군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 사랑의 마스크 기부운동을 전개한다.

현재 국가 유통망을 통해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지만, 공급물량 부족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등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십시일 반’ 사랑의 마스크 기부운동을 전개해 국가 재난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기획했다.

진안군 공무원과 방문자를 시작으로 진행된 마스크 기부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어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미칠 것 기대하고 있다.

기부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

기부함은 청사 출입구 정문과 후문에 각각 1개소씩 비치했다.

군은 기부된 마스크를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제외된 주민과 방역소독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정 및 사회취약계층 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기부 운동이 전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고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다중이용시설 연장 폐쇄

장수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한누리전당과 다목적체육관, 도깨비전시관, 대곡관광지 등 관리시설물을 잠정 연장 폐쇄 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당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도깨비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9일까지 폐쇄하고 지속적인 소독·방역활동을 실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장수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연장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김성현 소장은 “시설물의 일시폐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가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주요 의사진행은 임시회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세입·세출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규)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준열)에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관순 의원은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했고, 정옥주 의원은 진안군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교통편의 확대를 요구했다.

신갑수 의장은 “코로나19 예방 종합대책과 방역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확산방지와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군민 모두가 헌연체제가 되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